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2013 년 6 월 21 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3 장

담당: 홍보실 김성연 연구원

전화: 02-3701-7349

이메일: sungyeon@asaninst.org

010-8867-0767

communications@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 『아산폴』 남북당국회담 무산 책임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남북당국회담 무산 책임, 북한 48.4% 남북 모두 40.2%

-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 여론연구센터는 지난 6.16-18 일 '남북당국회담 무산(6.11)'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회담 무산의 책임을 북한에 있다고 본 응답자가 48.4%로 가장 많았고, 남북 모두의 책임으로 보는 비율도 40.2%나 되었다. '회담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3.4%의 유권자가 '우리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답해 '적극 나서지 않아도 된다'라고 응답한 36.0%에 비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했고, 95% 신뢰 수준에서 표집오차는 $\pm 3.1\%$ 였다.
- 김지윤 여론연구센터장은 "남북회담 재개를 위해 우리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53.4%)하게 나타난 것은 다수의 국민이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타개하는데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또 "이 응답은 아산데일리폴이 지난 5 월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관해 실시한 조사에서 53.5%의 유권자가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답한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회담 무산의 책임 소재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차는 컸다. 50 대, 60 대 이상의 62.1%, 66.7%가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평가한 반면 20 대, 30 대는 각각 32.9%, 35.1%에 그쳤다. 20 대와 30 대는 남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각각 57.2%,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새누리당 지지자는 찬성 44.1%, 반대 44.2%로 입장이 나뉘었다. 또 정치적 성향을 보수(53.4%), 중도(52.7%)라고 밝힌 응답자에 비해 진보 성향의 응답자(65.3%)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 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레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 호 수용소 탈출》 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 년 펜실베이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5 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조사개요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은 6월 11일 남북당국회담 무산 이후, 회담 무산의 책임, 회담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사용한 임의번호 걸기(Random Digit Dialing, RDD)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실시됐고,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pm 3.1\%$ 입니다.

주요결과

- ✓ **남북당국회담 무산 책임은 북한 48.4%, 남북 모두 40.2%, 우리 정부 3.3%의 순**
남북당국회담 무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 결과 북한에 있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았음
그러나, 회담 무산이 남북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 역시 40.2%로 높게 나타남
- ✓ **5060세대는 북한의 책임으로, 2030세대는 양측의 책임으로 인식**
50대, 60대 이상의 62.1%, 66.7%가 북한에 회담 무산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과 달리, 20~30대는 북한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각각 32.9%, 35.1%로 고연령층에 비해 적게 나타남. 20대와 30대의 다수는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20대: 57.2%, 30대: 56.2%)
40대는 북한의 책임(45.6%)과 양측 모두의 책임(43.5%)이라는 의견으로 갈렸음
회담 무산의 책임 소재에 대해 연령대별 큰 인식차가 있었음
- ✓ **남북회담 재개를 위해 우리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53.4%, 적극 나서지 않아도 된다 36.0%**
중단된 남북당국회담의 재개를 위해 우리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보다 우세. 과반이 넘는 국민이 회담 재개를 바라고 있었음
지난 5월 8일에서 10일에 진행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아산 데일리폴 조사 결과에서도,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은 63.8%(불필요: 30.6%)로 높게 나타남. 같은 조사에서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53.5%로 40.0%가 나온 적극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견보다 우세했음
다수의 국민이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타개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됨
- ✓ **새누리당 지지자의 44.1%, 민주당 지지자의 68.8%가 남북당국회담 재개 원해**
남북당국회담 재개를 위한 정부의 대응에 있어 정파, 이념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임
남북당국회담 재개를 위해 우리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민주당 지지자는 68.8%가 찬성을 했고, 새누리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찬성 44.1%, 반대 44.2%로 입장이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념성향에서는 보수(53.4%), 중도(5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진보성향의 응답자(65.3%)가 회담재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음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새누리당 지지자도 정부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많은 국민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지속되는 위협으로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된 한반도 정세가 하루빨리 정상화 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남북당국회담 무산 책임 및 회담 재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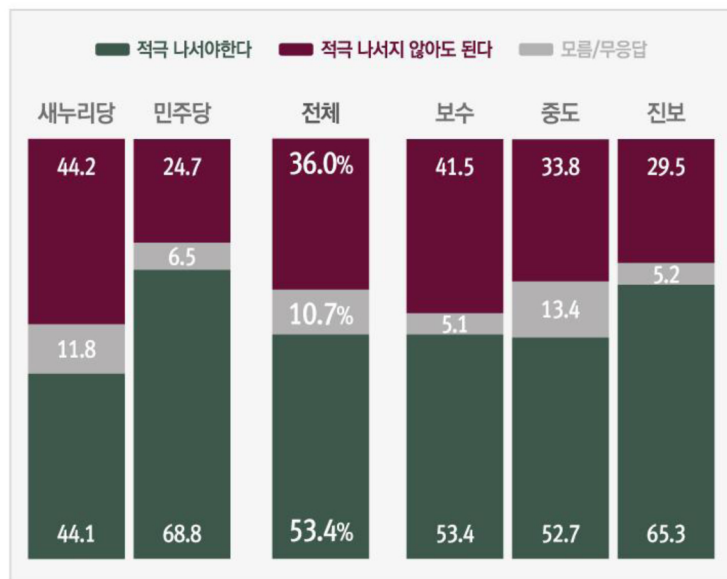
Q 남북당국회담이 얼마 전 무산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사기간 6월 16~18일



Q 선생님께서는 우리정부가 남북당국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6월 16~18일



- ◆ 조사관련 문의: 강충구 연구원(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이의철 연구원(02) 3701-7337, eclee@asaninst.org)